

출장결과보고
2009. 12.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현지조사를 위한 해외출장 보고서”

아시아농업연구센터
글로벌협력연구본부

I. 출장개요

1. 출장건명: 국제농업협력사업 평가 관련 현지 협력기관 역할 및 사업수행 실적 조사

2. 출장목적:

○ FAO 한국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SEARCA 농촌개발협력사업”과 관련 추진 실적 점검 및 조사

– 6, 7차 정책 협의회, 기술 워크숍 실적 점검

– 대만국립대학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Study Tour 점검.

3. 출장기간: 2009년 12월 3일(목) ~ 12월 9일(수)(6박 7일)

4. 출장자: 이대섭: 글로벌협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세부일정:

날 짜	방문기관, 지역	일 정
12. 3 (목)	(인천 -마닐라)	(인천 20:00 → 마닐라 23:15)
	마닐라공항 → 라구나 (Laguna)	SEARCA 본부로 이동(약 2시간 소요)
12. 4 (금)	SEARCA 중앙본부 방문	방문일정 조정(10:00-12:00시)
	SEARCH 지역개발 연구센터	6차 정책 협의회 개최 현황 및 결과물 점검 (Los Banos, 14:00-17:30)
12. 5 (토)	SEARCH 지역개발 연구센터	7차 정책 협의회 개최 현황 및 결과물 점검 (Los Banos, 09:00-12:30)
	Los Banos → 마닐라	SEARCA 운영진과의 간담회 개최(마닐라, 19:00-22:00시)
12. 7 (월)	SEARCA 본부(Laguna 지역)	– 기술 워크숍 및 Study tour 개최 현 황 실적 점검
12. 8 (화)	Dr. Rolando Dy. 연구센터 방문 및 간담회(마닐라 Asia Pacific University)	– 추진 실적 및 성과 점검 – 사업에 따른 종합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청취 및 토론 – CLMV국가의 농업경제 향후과제 및 국제협력 관계의 효율적 추진 방향 점

		검
12. 9 (수)	마닐라 → 인천공항	마닐라(12:40) → 인천공항(17:25)

II. 기관 및 단체 방문 결과

1. SEARCA 본부 및 지역개발 연구센터:

- 면담자 : Gil C. Saguiguit, Jr.(연구소 소장), Maria Celeste H. Cadiz (지식관리 담당연구원), Francisco F. Penalba(행정실장), Nova A. Ramos(교육담당 연구원), Carmen Nyhria G. Rogel(연구프로젝트 관리 담당),

- 장소 및 일시: SEARCA 회의실, 2009년 12월 4일(금) 10:00 ~ 17:30

○ 주요 면담 내용

- Asia Pacific University에 있는 Dr. Ronaldo Dy의 일정변경 때문에 방문일정 조정(10:00-12:00)
- SEARCA는 1966년 농업, 농촌개발 연구소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대학원과정 지원, 교육, 연구, 그리고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필리핀 대학내에 설립된 기관임.
- 6차 정책 협의회(Policy roundtable meeting)은 FAO한국 지부에서 요청한 것으로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1박 2일로 개최되었음. 이 협의회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의 농업 및 개발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음.
- 구체적 협의내용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농산업 성장을 위한 협력강화, 협력국가간의 경험공유, 전환기 농산업에 대한 현실점검, 그리고 농산업 발전을 위한 Capacity구축이 주요 논의주제였음.
- 참석자로는 베트남 농업부 차관(Dr. Ho Xuan Hung), 당시 SEARCA 소장(Dr. Balisacan), 이상무 한국 FAO회장, 베트남 IPSARD 소장(Dr. Dang Kim Son) 등 약 20여 명 참석하여 자국의 농업관련 현주소와 과제 등을 발표.
- 또한 이 정책 협의회에서는 세계화, 유전자혁명,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바이오 연료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협약하였음.

- 하지만 6차 협의회에서 주목한 사항은 농산업분야로 공급망 (Supply Chain)이 구체적인 이슈로 토의 되었다. 궁극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에 Capacity 배양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SEARCA 연구개발 센터:

- 면담자 : Maria Angela F. Abad(지역관리 담당), Mercedita A. Sombilla(지역개발 센터장), Roberta V. Gerpacio(프로젝트 관리 담당)

- 장소 및 일시: 센터 회의실, 2009년 12월 5일(토) 09:00 ~ 12:30

○ 주요 면담 내용

- 7차 정책협의회 개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이 CLMV국가 농업부문 및 식량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논의하기 위함이고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또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각 국별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최종 정책 제안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
- 이 협의회에서는 CLMV 정부기관, FAO 한국협회, SEARCA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호주 전문가들도 참석하였음.
- 또한 6차 협의회 의 성과물인 정책제안(안)들이 발표되어 의견 수렴 및 수정과정을 거치고 있음.
-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CLMV 국가의 농업분야에서는 큰 타격을 아직까지는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각국의 정책제안서에 금융위기의 여파를 반영하기로 결정함.
- 참석자는 32명으로 이 중 한국에서 6명이 참석하였음.
- 결과적으로 이 협의회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 SPS, 바이오연료 개발, 식량안보, 농산업 활성화가 주요 주제로 논의 되어 6차 협의회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3. SEARCA 본부 및 지역개발 연구센터

- 면담자 : Maria Celeste H. Cadiz, Carmen Nyhria G. Rogel, Mercedita A. Sombilla(지역개발 센터장), Roberta V.

Gerpacio(프로젝트 관리 담당)

○ 장소 및 일시: SEARCA 회의실, 2009년 12월 7일(월) 14:00 ~ 16:30

○ 주요 면담 내용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군의 바이오연료 개발에 있어서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주제로 한 5, 6, 7차 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세부전략방안 모색을 위하여 실무기술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토록 하였음.
- 바이오연료 개발에 있어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과 관련한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자,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략적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숍임.
- 개별국가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분석기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결정을 목적으로 바이오연료 개발정책안 검증을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특정국가의 바이오연료 개발계획 검증에 유용한 작업도구를 개발하며, 해당국가의 전략적 대안의 적정여부 평가를 위해 개발한 도구의 실질적인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음.
- 또한 수출지향의 바이오연료 개발 성공으로 토지이용성 효율화,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방안 모색, 값싼 노동력 활용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 기여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 정책입안자들의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으로 수정을 거쳐 균형 있는 바이오연료개발 전략에 도달할 수 있는 분석기법을 개발하는 실용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됨.
- CLMV 국가간에 사회경제적 환경, 개발 잠재력, 바이오연료 작물종류, 가공기술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정책목적, 경쟁력 등에 적합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정책적 고려요인으로는 국가적 에너지 다양성 조사, 가격정책, 바이오연료작물 공급 잠재력 분석, 민간 및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구축, 시장활성화 등의 요인이 전제되어야함.
- 바이오연료 개발 전략을 고려한 농업, 식량안보, 빈곤, 환경에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분석되어 이를 토대로한 정책입안이 결정되어야 함.

4. 필리핀 마닐라 Asia Pacific University

○ 면담자 : Dr. Ronaldo Dy, Maria Celeste H. Cadiz, Carmen Nyhria
G. Rogel, Nova A. Ramos

○ 장소 및 일시: 마닐라 Dr. Ronaldo Dy 연구실, 2009년 12월 7일(화)
14:00 ~ 16:30

○ 주요 면담 내용

- 2009년 9월 21-25일 타이완의 타이베이 소재, 국립 타이완 대학교에서 "SEAMEO 회원국을 위한 농업 생명공학 Study Tour"을 실시함.
- 본 Study Tour는 고위직 정책 집행자들과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biosafety)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실행에 관련된 과학자 혹은 연구위원들을 위해 구상됨. 프로그램의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학습 기회와 타이완의 농업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참가자들 각자의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Study Tour에는 캄보디아(4), 미얀마(3), 필리핀(1), 태국(1), 베트남(3)에서 12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고, SEARCA 대표 2명이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로 참여함.
- Study Tour 마지막에 SEARCA가 실시한 평가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대해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음. 각 항목에 대해 1에서 5로 평가(1은 “매우 나쁨”, 5는 “매우 좋음”)한 결과, 참가자들은 전체 항목에 대해 평균 4.37(“좋음”에서 “매우 좋음” 사이)로 평함.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Study Tour 관리자들과의 관계”가 4.8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Study Tour의 전반적인 구성”, “시간 관리”, “전체적인 Study Tour 경험”, “교통 서비스”, “다른 참가자들과의 관계”는 두 번째로 높은 4.58을 받음. 반면, “집단 토론 및 워크숍”은 가장 낮은 3.83을 받아 토론 세션을 추가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Study Tour가 될 것임을 시사함.

■ 총평

FAO 한국협회와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SEARCA는 계약직을 포함한 70여명의 인원이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활동하는 전문 연구관리기관임. 따라서 파트너의 수행능력은 R&D부분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선정기준에는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하지만 사업목적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으로 광범위한 정책개발이기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제기됨. 또한 총 예산 1억 8,900만원 중 약 1억 2,000만원(\$100,000)이 SEARCA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나머지는 FAO 한국협회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출에 대한 효율성 문제도 대두

되고 있음. 더불어 정책토론회에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어 실질적인 교육훈련, 기술전수 및 훈련 프로그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추진은 SEARCA를 통해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즉, 동남아시아의 연결통로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예산의 효율적 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 규범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직접 SEARCA와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